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2월 3일 (제98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그대들 덕분에

따뜻한 목화 꽃 솜이불

날 단잠을 재웠고

한 여름 모시적삼 더위를 떨쳤지

그대들은

주님의 선물

날 은혜의 강물에 배 띄워

배 안에서 세계의 바다로 나갈 길 열었지

이 모두 당신들 희생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일뿐이랴

그 날 그 시

내 주인 물으신다면

목화 꽃 당신들 덕분에라 말하리다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마다않고 따라온 당신들

그 날 그 시에

주 앞에 날 내 노시구려

칭찬과 면류관 씌워주시리다

2013. 4. 23

朋友

봉우컬럼

덕담(德談)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날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함께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른들은 세배돈과 함께 덕담을 해준다. 입시생에게는 ‘올해 공부에 전념해라.’, 결혼 안한 아이들에게는 ‘올해는 부디 좋은 사람 만나라.’,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잘 살고 올해는 손주 좀 보게 해다오.’, 아직 취업을 못한 자식에게

는 ‘좋은 데 취직하려면 더욱 노력해라.’ 등등 좋은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고 교훈도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명절 때 일부러 일을 만들어 고향에 안 간단다. 부모님의 덕담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결혼하라는 얘기도 듣기 싫고, 아이 낳으라는 말도 부담되고, 취직 못하고 있는데 취직 얘기할 까봐 아예 부모를 안 보러간단다.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듣기 싫다는 것이다. 옳은 처사일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산 자식들에게 하는 덕담이다.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성공하고 건강하단다.’, ‘이러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 잔소리 같고, 올라미 씌우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아서 싫단다. 그렇다고 자식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는가? 취직 안하고 있는 자식에게 ‘그래, 쫓아서 놀아라. 늙으면 못 논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가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 눈치나 보며 등이나 슬슬 긁어주는 말만 하면 안 된다. 자고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약이 되는 말은 듣기에 좀 곱끄럽다. 요즘 성도들의 비위나 맞추는 교회가 많다. 전도하라는 얘기며, 십일조 얘기 못

하는 교회가 많다.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서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짓지 못하는 병어리 개다. 성도가 듣기 싫어해도 옳은 말을 해야 한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책임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덕담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제대로 된 자식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저런 이유대지 말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설이 되길 바란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6:10~11)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일을 맡기면 목숨을 건다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가려면 참 어려웠 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 어 물어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은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 게이션은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 로 길을 찾아주는 장치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고 지시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 경험자에 게 물어보는 시대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시대라 할 수 있습 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 시기 때문에 범사에 해매지 않고 살게 되 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를 쓰셨을까?’라고 입력해보겠 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경을 통해 즉시 답을 찾 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 다. 농부가 가장 먼저 벼씨를 고르듯 사 람을 고르셨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길러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쓰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 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 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 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 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 고 예수를 좇으니라”(마4:18~22). 예수 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을 택하신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부로 열 심히 일을 하다 예수님께 발탁되었습니 다. 예수님은 사람을 택할 때 먹고 노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 일에 충 실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부로서, 의사로서, 세리로서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던 자 들이었습니다.

길은 잃을지라도 사람은 잃지 말라

저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심분이 해합니다. 저 역시 놓고 있는 자에게 일 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 아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 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

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을 많 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시간에 개의치 않고 목적을 실현한 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것도, 사도 바울을 택한 것도 다 이런 이 유에서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는 베드로, 예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으려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쫓 아갔던 바울을 택하신 이 유입니 다 . 예

수 님이 저를 주 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도 한번 시작하면 끝장 을 보는 성격을 보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성격 덕에 철산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 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근성’, ‘올인 정신’, 이것이 성공 의 비결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마태 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다가 가 고침을 받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 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 그리고 반 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가 되겠다던 입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 겠다고 기도한 한나, 이 모두 기필코 근 성이 있었던 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 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한 후에 왕 앞에 나간 에스더도 이 기필 코 근성이 있었습니 다. 예수님은 말씀하 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 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 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15). 우리 삶에서 대충이란 기생충을 잡아내고 ‘기필코 정신’을 주입해야 성

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 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 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3~14).

목적의식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잡아 야 달려갈 것 아닙니까? 활을 쏘아도 과 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전들은 다 확고한 목

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목적이 이끄 는 삶은 피곤 치 않습 니다 . 힘 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셋째, 예수님은 목적 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 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20:24). 이는 사도 바울의 고 백입니다. 사명(使命)이란 부리는 자에 게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부도내지 않는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 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 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는 얻으리라”(마10:39). 이런 정신이 있 어야 합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 지 않은 37명의 용사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신 앙이 될 때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일의 가치를 아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 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 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마7:6).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을 벌기 위해 주야 로 달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 이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 에 그 일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 다. 자기의 일에 가치를 알게 되면 절대 나태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면 의욕이 생성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 게 되어 있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 더라도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인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 다”(롬8:18).

사람, 곧 인재가 힘이고 경쟁력이다

저는 봉사나 헌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에 받을 상과 가치를 가르칠 뿐입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정치를 하든, 거기는 다 전쟁터입니다. 승패가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가정에 얽매었다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경이 온통 가 정에 가 있으면 일에 몰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버스회사의 사장은 가정문제가 있는 자들에겐 운전대를 맡 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갈리어 사고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사고율이 낮다고 합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생활에 얽매인 자라면 성도를 살리기는커녕 성도에게 짐이 되 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이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 “내게 오는 자 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 사 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 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 이라”(딤후2:3~4).

여러분,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 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 동업하 고, 결혼하고, 대업을 도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썼을까?’ 생각합시다. 좋은 만남은 인생의 날개가 되지만, 잘못된 만남은 평생의 울가미가 되니까요. “의 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만절필주(萬折必主)하는 인생!

나는 변화되기로 작정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황하(黃河)를 바라보고 있던 공자를 향해 제자 자공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일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니(萬折必東), 강이라도 가히 의지가 있는 것 같구나!”

이에 덧붙여 공자는 군자의 삶 또한 이러해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당부한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 길이만 5,464km에 달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황하의 강줄기는 굴곡이 매우 심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강물은 결국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만 번을 꺾여 흐르지만 황하가 언제나 그렇게 동쪽으로 향하듯,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한분뿐이어야 할 것이다. 역경의 순간마다, 아니 평안하여 안일함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에도 ‘만절필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디 멀리서 다른 가르침을, 삶의 모델을 찾을 필요도 없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며’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총회장님의 발자취만 봐도 그러하다. 오직 한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는 모습뿐이

다. 총회장님께서 신년 화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고 당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가 아니겠는가!

헬라어로 ‘죄(하마르티아)’란 본시 ‘과녁에서 빗나간 화살’이란 의미다. 인생의 목표에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는 순간, 집요한 유혹이 시작된다. 결국엔 죄의 파도에 휩쓸리고 만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표에서 빗나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가 뒤따르게 되어있다.

우리 모두는 창자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인가 들고 가야 한다. 그때에 당신은 무엇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자랑할 거리’인가, 아니면 ‘변명할 거리’인가!

돈보기를 들이댄다 해서 다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태양 빛을 한 점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때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뀐다. 집중력에 시간이 더해지면 가속도가 붙는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집중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린다. 이에 더하여 그 목적하는 방향이 옳다면 곧 놀라운 작품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견뎌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실제로 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어진 인생에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 부딪히고 움직이자! 우리 모두 삶의 목표에 집중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보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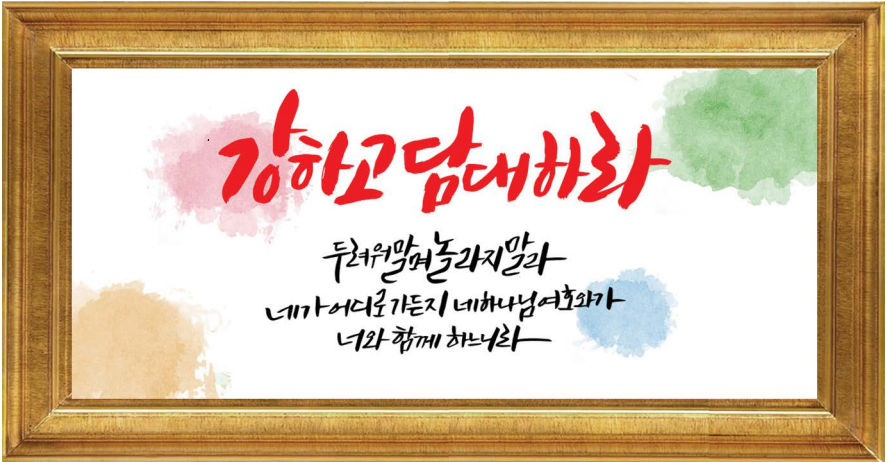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다. 음향장비와 영상장비 세팅이 끝날 무렵 총회장 목사님께서 준 비상상황을 보시고자 오셨는데 장비가 세팅된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회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시면서 세미나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비들을 맨 뒤로 다시 세팅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단의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느껴졌다. 세미나 내내 교단의 목회자들이 변화되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변화해보리라 작정했다.

세미나 이 후 과연 내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문득 머릿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1:4)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라는 2019년 슬로건을 우리 교단에,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더 가슴이 뛰었다.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봤더니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은성 성도



:: To Be Succeeded ::

:: 소망의 언덕 ::

악한 나로 강하게

청지기 인생

결혼 전, 남편 따라 주의 길을 들어서려니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모임에서 간절히 묻고 또 물었다. “하나님, 전 몸도 맘도 연약합니다. 왜 그런 저를 택하셨나요?” 어느 날 밤, 기도시간이 끝날 때쯤 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곧이어 목사님의 교육시간을 통해 확답을 주셨다. 지극히 작고 적은 유대인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온 소수 민족인 그들의 저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을 머리로는 알게 되었지만 나에게 체득되어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이전에는 맘먹고 결단하면 쉬이 됐었던 것들이 이젠 내 뜻대로 맞아 돌아가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선하게 살아왔다고 여겼던 내 안에 그토록 누추한 것들이 많음을 보았고, 살 소

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며 차라리 지금 아버지께 가고 싶다는 신음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가 거하시기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을 보배로 받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보배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님을 시인하고, 나의 능과 잘남을 비울 때에야 비로소 담기기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 불리는 가지치기도 필요하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으신 것도, 각자에게 약한 부분과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속사함을 날로 단단케 하시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 삶의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강하고 깨끗하게 제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길 소망한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연말이면 교육부서는 성탄예배 준비로 아주 바쁩니다. 매일 팀원들과 모여 기도하고 연습을 마치고 나면 새벽 1~2시가 넘기 일쑤였고, 혼자 남아 이것저것 고민하고 기도하다보면 새벽 3~4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밤을 꼬박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12월에 한 교사가 제 건강을 생각하여 수영강습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거절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몇 차례나 권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순순히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수영장을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날 몇시에 잠이 들건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면 ‘아무게 선생님 생각해서라도 가야지’ 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1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대로 수영장을 향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익히 경험했기에 서둘러 환복하고 풀장에 들어갔죠. 강습생들과 줄지어 레일을 따라 수영을 하던 중 깜빡 졸았던 모양입니다. “어푸푸...” 물을 한껏 먹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 돈 내고 다녔으면 이렇게 안 한다.” 레일 중간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한 교사가 귀한 물질로 섬긴 것이었기에 그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그 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데 내 안의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 교사가 지불한 대가를 참 귀히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너를 위해 내가 치른 대가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니?”

순간 때때로 이렇게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린다고 자부했던 모습이 한 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랑해서 당신의 피 값을 주고 속량하셨거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를 책망했습니다. 이제 그 날 경험했던 작은 일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 참된 깨달음 ::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우리 스승 이신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으셔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전도집회를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빙그레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자랑스럽고 흐뭇하신

거지요.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바꾸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을까?’, ‘나의 주군이신 주님께 나는 몇 점짜리 종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니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해 빙그레 웃던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찡그리지는 않으실지, 화난

표정은 아니실지 걱정됩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예수님이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실 때처럼 흐뭇하게 웃으시도록 하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변해야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대충이란 군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명에 부도내지 않도록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교역자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바보처럼 결심만 하는 자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울산예수중심교회 이덕희 목사

와 같고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과도 같은 짧은 인생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길어야 100년 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삶에 정신을 빼앗겨서 영원한 세상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미국에 로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기농법재배의 선구자였으며 자연식품 섭취를 권장하는 전도사였습니다. 통조림이나 인스턴트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섭취하라고 홍보하며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내 나이

가 지금 72세인데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아니면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TV 토크쇼에 나가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녹화가 끝나자마자 심장마비로 돌연사 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식생활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의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또 쫓겨나듯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이 작은 지역에서 이제 어머니를 받아줄 교회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에게 핍박당하는 것도 모자라, 다니던 교회에서까지 배척당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그저 불쌍해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어머니는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옆집 권사님의 전도로 나가게 된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건강도 회복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옆집 권사님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며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테이프를 들던 어머니께서는 전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간 교회는 방언기도를 금지했습니다. 자연스레 기도와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 나가기 전보다 더 심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갈급했던 어머니는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이 분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장성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어머니는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와 비디오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

다. 여름에는 현관문을 열고 지냈는데, 어찌나 오디오 볼륨을 높였는지 학교를 마치고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서면 계단에 목사님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5층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 어머니가 집에 계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우리 교단의 지교회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배실황을 볼 수도 없던 때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는 부지런히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장성기도원에 아픈 성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는 어머니가 잘 못됐다고 비난했고, 결국 쫓겨나듯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6번째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어머니의 믿음과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의 광주예수중심교회까지 전도한 사람들을 승합차에 가득 태워 주일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약 10년 동안 여섯 교회에서 쫓겨나고, 기도할 곳조차 없어서 전도한 사람들을 이끌고 산 속에서 기도할 처지가 되었어도, 결코 단 한순간도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였기에 하나님과 이초석 목사님께 의리

를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우리교단의 지교회를 세우는데 어머니를 주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로 부름 받아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에스더 등,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쥐꼬리만 한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 수 없다’고 외치시며, 목사 안수를 준 교단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던 총회장 목사님의 현재를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어머니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불쌍하게만 바라보았던 어린 아들은 이제 자라서, 그 시절부터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 삼아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가며 바랄 수 없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 지금도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실 성도님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정명관 성도

은혜의 새 아침!

사실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인위적인 설정임에도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의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 같습니다. 해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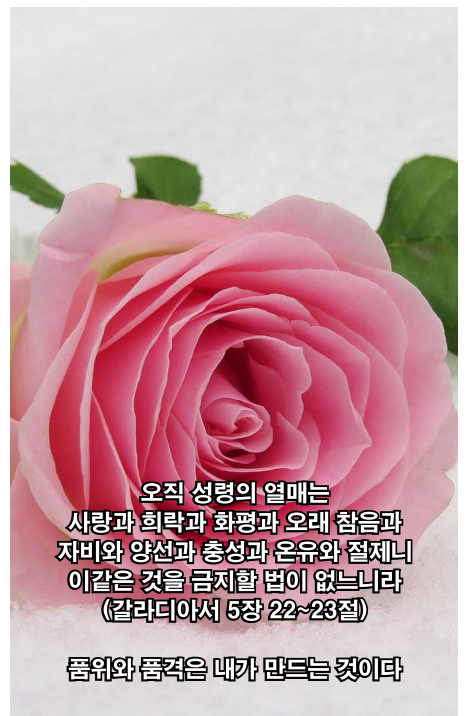
그러나 2019년에 먼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개인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은혜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게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지거든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사무치게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와 사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흥내낼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과거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횡방자요, 죄인중의 괴수였던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 바울은 늘 빛진 자의 심정으로 충성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새아침을 여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품위와 품격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